

10년 동안 잊고 지낸 희망, 정말 오랜만이다

글·김현

내가 결핵이라는 병을 처음 알게된 것은 86년 겨울이었다. 잦은 잔기침, 감기 같은 증상들... 그래서 무심했던 나였지만 도무지 나을 줄 모르는 기침에 결국 병원에 들려 의사의 권유로 X-선 사진을 찍게되었는데,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사진을 보더니 내게 보건소에 가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뜻모를 불안감과 걱정에 싸여 무작정 보건소를 찾았다. 난생처음 찾아간 보건소에서는 다시 사진을 찍고 조그마한 통에 객담을 받아 오라 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의사의 말은 너무나 간단했다.

“걱정할 것 없어요. 약간 잘먹으면 나아요.”

의사는 나에게 6개월 동안 꾸준히 약을 먹을 것을 당부했지만 나는 나의 불안하고 심각했던 마음이 의사의 대수롭지 않는 말에 별 것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허전함만을 가슴에 안은 채 돌아왔다. 정확히 내 병이 무엇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자각을 못하고 어떻게 6개월 동안 약을 먹을까, 하는 걱정 아닌 걱정에 사로잡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지에 대한 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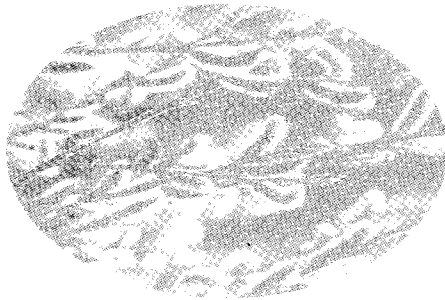
도 못한 채 나는 보건소에서 쥐어주는 약을 한 움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니 며칠 췌가 되자 잔기침도 사라지고 느껴졌던 자각 증상들도 하나둘 사라지고 모든 것이 예전의 내생활로 돌아와 편안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약은 의사의 권유대로 아침에 일어나 공복에 꼬박꼬박 복용했다.

무심한 약 복용으로 심각해진 결핵

차츰 차츰 이어지는 증상의 완화로 내 마음에 경각심이 사라져가던 어느 날 난 친구들과의 멋진 여행계획을 세워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신나는 여행에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결국 한 번 두 번 약을 빼먹기 시작했고, 마침내 약을 먹는 등 마는 등 하다 그냥 끊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처음부터 결핵이라는 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채 그냥 그런 병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무심하게 행동해버린 나의 행동의 결과는 훗날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내살 속에 결핵이라는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내어 오늘까지 감당기 어려운 힘든 짐을 짊어져야 하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이다.



**처음 치료 실패 후
10년의 세월도 넘는 그 동안
어떻게 그 약을 다 먹었는지
새삼 계산을 해보니 놀랍기도
하다. 86년 처음 결핵 약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
리 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한 순간의 안일함이 지금의
삶을 만든 것이 아닌가.**

처음 약을 복용했을 때 좋아졌던 증상들은 치료의 소홀로 점차 더 심해져 갔고 내 한몸 주체하기 힘들어 허덕이다 1990년 8월 국립마산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미 결핵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피를 토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한 번 숨이 가쁘기 시작하면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혈떡이는 내 몸의 증상들 속에서 난 약을 한 움큼씩 입에 털어 넣으면서도 예감되는 불안에 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사라지고 살기 위한 몸부림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 그 속에 정해진 순서처럼 그렇게 점차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더해 가는 기침과 각혈, 그리고 가쁜 숨.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후회해도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렸고, 아무리 후회해도 내겐 의미가 없는 자학만 이어질 뿐이었다.

병원생활이 익숙해져 가면 갈수록 결

핵에 대한 지식들이 늘어갔다. 대부분 폐결핵의 증상들은 비슷비슷하지만 외형적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을 보기도 했다. 개 중에는 나처럼 처음 치료를 잘못해서 약을 이것저것 먹고 바꾸고 바꾸다가 얼마 안되어서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난치성 환자도 의외로 아주 많음을 알게 되었다.

아침만 되면 밤새 가슴에 걸린 객담을 뱉으려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고 침대 아래로 고개를 박아 시뻘건 얼굴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기침을 하며 겨우겨우 가래를 뱉어내는 환자들. 가래를 뱉어 내지 못하면, 기침과 숨이 차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하고 애써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희뿌연 미소로 부스스 웃어 버리는 옆의 환자를 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에 무엇인가 말을 해주고 싶지만 그저 알았다는 이해의 눈빛으로 마음을 대신하고 외면해야 하는 가슴아픔에…… 식사시간에도 느닷없이 기침을 하고 객담을 뱉어도, 또 방금까지도 함께 이야기

하던 사람이 갑자기 쏟아놓는 시뻘건 피를 보면서, 한밤중 기침을 심하게 해서 잠을 설치게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이젠 나도 저들처럼 쟁이가(폐병쟁이를 그렇게 부른다) 되어 가는 것을 서글픈 마음으로 인정해야만 했던 그 멍든 아픔이…….

새로운 희망에의 날개 짓

해가 바뀌어가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가면서 내 병력도 늘어만 가고 그럴수록 난 내 자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지고 다시금 치료에 전념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96년 처음 국립병원에 발을 디딘 지 6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렇게도 나를 괴롭히던 각혈이 멈추고 호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것인지 조금씩 호전을 보이는 자신을 보며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가슴을 채우고, 10년도 훌쩍 넘는 세월을 내게서 앓아간 절망이 마침내 99년 2월 완치라는, 폐결핵 치료 종료라는 눈물겨운 기쁨으로 내게 돌아왔다.

그동안 나는 마산, 공주, 목포 등 우리나라 모든 국립결핵 병원을 돌며 6번이나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고 어떤 때는 홀로 빈가에 살면서 생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홀로 지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오히려 더욱 힘든 상황을 만드는 걸과였을 뿐이었다.

오랜 치료를 끝낸 지금도 나는 몸에 여러 가지 결핵으로 인한 증상들을 안고 산다. 호흡이 곤란해서 힘들기도 하고, 특히 기관지가 상해서 찾아오는 기관지 염증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해 병원 신세를 지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래도 결핵이라는 이 지독한 병에서 놓여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지금은 비록 보양원이라는 우리들만의 동산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내일의 더 큰 희망을 가슴에 품고 그 희망을 날개 짓 하는 그 날을 준비하며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간직해 본다.

처음 치료 실패 후 10년의 세월도 넘는 동안 어떻게 그 약을 다 먹었는지 새삼 계산을 해보니 놀랍기도 하다.

86년 처음 결핵 약을 받아오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 리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한 순간의 안일함이 지금의 삶을 만든 것이 아닌가.

모든 현실에는 원인이 있는 법.

또 오늘의 한순간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아직도 결핵이라는 병에 힘들어 하는 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 그리고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꼭 처방에 따라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이것이 야말로 결핵 치료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나처럼 강산이 변하도록 약과 씨름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卍